

“지역민 삶 선도하는 라이프스타일센터 만들것”

광주신세계 법인 설립 19주년

“지역과 함께한 19년, 이제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선도하는 ‘라이프스타일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 1995년 4월10일 현지법인으로 출발한 이래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적인 도전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으로 성장해 온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가 10일로 법인설립 19주년을 맞았다.

광주신세계는 그동안 철저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영과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긴밀히 대응하는 속도 경영을 펼쳐 ‘유통업의 본질’에 입각한 기업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올해 최대의 핵심 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식품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통해 지역민에게 새롭고 즐거운 음식 문화를 선보였다는 평가다.

광주신세계는 또 올해 초 사회공헌전담 인력을 강화해 ‘광주신세계 희망스케치 봉사단’으로 확대, 출범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SHIN-SEGAE LOVES GWANGJU’라는 구호 아래 지역사회 봉사사업, 문



화·예술·체육 지원사업, 효행·선행 장학사업, 지역경제 상생경영, 친환경 경영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따뜻하고 풍요한 공동체 건설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민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과의 우호협력을 보다 견고히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양동시장과의 상생협약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



광주신세계 전경.

식품매장 리뉴얼 새로운 음식문화 선포

사회공헌전담 ‘희망스케치 봉사단’ 출범

전통시장 상인 대상 맞춤형 문화강좌도

체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양동시장 도매상 영업합성과 프로젝트인 ‘희망가게’의 후속점포 개발을 계속하고,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교육과 댄스강좌 등 다양한 테마의 문화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광주신세계는 지역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메세나 활동, 내년 개최되는 하계 U대회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지역 국제행사의 성공을 위한 홍보 창구 역할 등 지역과 밀착한 경영을 펼친다는

수입품 가격 땡튀기... 립스틱15배·와인 6배

병행수입·직구 장벽 낮춰 가격 인하 유도키로

평균 수입가격이 1천423원인 A 립스틱의 국내 평균 가격은 14.9배인 2만1천150원, 평균 9천372원에 수입하는 미국산 B 와인의 국내 평균 판매가는 5.7배인 11만원.

관세청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한 10개 공산품의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비교표는 외국의 유명 브랜드의 한국내 판매 가격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관세청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한 공산품은 생수, 전기면도기, 유모차,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 타이어, 가공치즈, 립스틱, 등산화, 와인(칠레, 프랑스, 미국산) 등이다.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민물가 체감도가 높은 것들이다. 이번 수입 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수입통관 자료를 기초로 산출했다.

수입 립스틱의 국내 판매 가격은 수입가의 9.2배로 조사됐다. 평균 수입가가 1423원인 4/4분위 립스틱의 국내 평균 판매가는 2만1150원으로 무려 14.9배에 달했다. 평균 3144원에 수입된 3분위 립스틱도 11.1배인 3만5000원에 국내에서 판매됐다.

와인의 경우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 비율이 4.8배로 나타났다. 원산지별로는 칠레산이 5.1배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국산 5.0배, 프랑스산 4.37배로 조사됐다. 4000원에 수입되는 칠레산 와인은 6배인 2만5000원에 판매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병행수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을 확대해 소비재 수입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



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비재 수입 시장 구조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가 2~5배로 커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 등 대안 수입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0억이상 금융자산가 10명중 4명 ‘자수성가’

하나금융경영연 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9일 하나은행의 프라이빗뱅크(PB) 고객 977명을 설문 조사한 ‘2014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 10명 중 4명 이상이 ‘자수성가형’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 중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자수성가형은 전체 응답자의 43.6%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상속·증여를 바탕으로 자산을 불렀다고 답했다.

연구소는 “상속 자산이 현재 자산의 20% 미만을 차지한다는 응답 비중이 29.4%, 20~40%를 차지한다는 비중이 34.0%”라며 “‘상속형’ 자산가도 현재 자산의 상당 부분은 스스로 형성한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소는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부자는 부채비율이 지난해 13%에서 올해 20%로 높아졌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들의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점으로 미뤄 부채를 적극 활용해 저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앞으로 부동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률이 10%인 반면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률이 31%로 나타나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증식·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응답자를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거주자의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했다. 반면, 서울 다른 지역과 지방에 사는 응답자의 지출은 감소했다.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중량
충격을
기준통과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을 58dB이하 중량충격을 50dB이하
수입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충간 중량 충격을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층

데코타일(적사각형)

데코타일(정사각형)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주)금용건설

문의전화 062-575-9082

즉석요리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스퀘어점

유생존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한타, 쥬스)

프리미엄 최상급 양념
· 풍부한 육즙
· 부드러운 식감
· 올일품 치즈와 자른 허브 육성
· 친환경 무공해 신선한 재료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062) 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